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1)

장 휘 숙¹⁾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애착과 정체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남녀 대학생 443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애착양식(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정체감의 관계 및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정체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현재의 애착양식은 단일문항의 4범주 애착양식척도로써 그리고 3인에 대한 애착은 IPPA로써 측정되었다. 개인의 자아정체감은 중다의 차원을 포함하는 복잡한 구성개념이기 때문에 상이한 가정을 바탕으로 제작된 세 개의 정체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4범주의 애착양식에 따라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6개 요인 모두와 자아정체감 척도의 8개 하위요인 중 6개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의 하위요인들은 8개 영역 중 교우관계영역에서만 정체감 유예와 혼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3인에 대한 애착은 몇 개의 하위요인만 제외하고 정체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어머니와 동년배 애착은 대부분의 정체감 하위요인들에서 유의하게 큰 설명량을 갖는 변인이었다. 정체감척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는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이었다고 그 다음이 동년배였으며 아버지는 가장 영향력이 적은 인물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청년기는 개인의 정체감 발달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특히 청년후기는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포함하는 시기로서 직업생애를 계획하고 성인역할로 이동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감 탐색과 전념의 확립은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다(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

Marcia, 1980; Erikson, 1968). Erikson(1968)은 정체감 발달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으로 구분하였으나 Marcia(1976)는 위기와 전념의 두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네 개의 정체감 상태 즉 정체감 성취, 유예, 유실 및 혼란으로 구분함으로써 정체감에 관한 연구를 확장시켰다. 여기서 정체감 성취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확고한 신념체계를 확립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반면, 유예는 현재

1) hsjang@hanbat.chungnam.ac.kr

위기상태에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 해당한다. 또한 유실은 위기의 해결 없이 부모나 주위 타인들의 가치와 기대를 무조건 수용하는 사람들이며 혼란은 현재 위기상태에 있지도 않고 개인적 해답을 얻기 위한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장휘숙, 1999a 참조).

통합적인 자기상인 정체감은 개인의 다양한 특성들과 관련되어 있다. Marcia(1980)는 정체감 발달에서의 개인차는 청년기에서의 대인관계적 적용과 높은 상관이라고 가정하고 자아정체감을 성취한 개인들은 분명한 자기정 의가 가능하고 더 낮은 수준의 불안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Kacerguis 와 Adams(1980) 및 Fitch와 Adams(1983)같은 연구자들은 개인의 정체감이 자기존중감은 물론 도덕적 추론능력, 남성성과 여성성, 동조성, 성공공포, 성취동기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근래에는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청년기의 정체감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Rice, 1990). 일찍이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이 청년후기 대학생들의 자기개념, 자기존중감, 인생만족과 정적으로 상관되고 우울이나 불안, 분노, 소외 혹은 죄책감과는 부적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후기 동안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기주장성과 데이트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평정과 관련되고(Kenny, 1987) 대학에서의 적응은(Holahan, Valentiner & Moos, 1995; 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 Kenny & Rice, 1995) 물론 개인의 사회적 능력과도 높은 상관이 있으며(Rice, Cunningham & Yourng, 1997) 심리적 증후와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다는 결과들(Raja, McGee & Stanton, 1992; Kobak & Sceery, 1988)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애착이 개인의 자아발달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의 통합적인 자기상인 자아정체감의 발달도 애착과 관

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대학환경은 신입생들이나 저학년들에게는 영아연구에서의 낯선상황(Strange Situation)과 유사한 맥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Kenny, 1990), 애착관련적 도식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것은 다시 적용적 도전인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청년후기의 변화하는 환경적 맥락내에서도 자기와 타인에 대한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바탕으로 자아정체감 탐색을 위해 요구되는 개인적, 대인관계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내적 작동모델이란 개인이 애착인물과의 이른 경험을 통하여 형성하게 되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의미한다(Bowlby, 1980).

그러나 지금까지 애착과 정체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은 일관성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증거로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의 통제 및 정체감 발달의 관계를 연구한 Quintana와 Lapsley(1987)는 애착과 정체감 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대조적으로 Lapsley 등(1990)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년기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적용적 도전인 정체감 발달에 애착이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애착과 정체감 및 대학에서의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Lapsley 등은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정체감의 유의한 예언자인 동시에 대학에서의 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Quintanata와 Lapsley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연구 모두 IPPA(Armsden & Greenberg, 1987)를 사용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를 측정하였으나 정체감 척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Quintana와 Lapsley는 개인의 정체감으로서 청년기 이전의 심리사회적 단계해결의 정도와 정체감 선택시의 전념의 정도

를 측정할 반면, Lapsley 등은 느껴진 계속성(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집단과의 동일시(사회적 정체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두 연구에서 나타난 상이한 결과에 대해 Lapsley 등은 자아정체감이 어떤 단순한 조작을 허용하지 않는 중다차원적 구성개념이기 때문에 애착변인들이 정체감 발달의 전체적 차원이 아니라 단지 일부의 몇가지 차원들에만 기여한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반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하여 애착과 정체감의 관계를 연구한 Kroger(1985)는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애착양식과 정체감 상태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Marcia의 분류를 따라 개인의 정체감을 성취, 유예, 유실 및 혼란의 네가지 상태로 구분하고 분리불안검사를 사용하여 개인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할 결과 정체감 성취 청년들이 부모에게 가장 안정되게 애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유실 청년들은 부모에게 가장 불안하게 애착되어 있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탈애착되어 있어 차이를 보였으나 유예 및 혼란상태와 애착양식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2년간의 종단연구(Kroger & Haslett, 1988)에서는 안정된 애착양식과 정체감 성취상태 사이에만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과 정체감 사이의 부분적인 결과는 그들이 사용한 분리불안검사가 개인의 애착관계를 신뢰롭게 측정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애착과 정체감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선행연구들이 애착과 정체감의 관계에 대해 일관성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연구들을 통합분석한 Rice(1990)는 애착과 정체감 척도 점수들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덧붙여 애착과 정체감이 관련되어 있을 또 다른 가능성은 애착이 대처방식과 관련되

어 있고(Greenberger & McLaughlin, 1998; Mikulincer, Florian & Weller, 1993; Kobak & Sceery, 1988) 대처방식은 또한 정체감과 관련되어 있다(Berzonsky, 1992; Marcia, 1976)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외상적 사건의 대처시에 지원추구전략을 포함하는 문제집중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정서집중적 대처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정체감의 질적 특성에 따라 즉 정체감 성취의 개인들은 문제집중적 대처를 그리고 유실이나 혼란된 정체감 양식의 소유자들은 정서완화적 대처나 소망적 사고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대처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애착과 정체감의 관계에서 나타난 불일치한 결과들은 애착과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들이 서로 상이한 데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정체감은 중다의 차원을 포함하는 복잡한 구성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척도를 사용하였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사용된 정체감 척도(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 척도: EPSI)와 함께 서로 다른 가정을 바탕으로 제작된 정체감 척도(서봉연의 자아정체감척도와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를 함께 사용하여 개인의 정체감을 측정하고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 애착척도로 측정된 애착양식과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한다. 또한 대학교 시기인 청년후기에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뿐아니라(Greenberger & McLaughlin, 1998; 장휘숙, 1997; Kenny & Rice, 1995; Holahan, Valentiner & Moos, 1995)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함께 대학생들의 개인적, 사회적 정체감의 예측을 유의하게 개선시키므로(장휘숙, 1997a; Lapsley 등, 1990), 이 연구에서는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사용하여 어머니, 아버지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고 어느 요인이 정체감 발달에 더 큰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려고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전체 475명의 대학생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2000학번과 1999학번인 지방 국립대학 1, 2학년 학생들로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었다. 1, 2학년 학생들만을 표집한 이유는 대학환경은 신입생들이나 저학년들에게는 영아연구에서의 낯선상황(Strange Situation)과 유사한 맥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애착관련적 도식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Kenny(1990)의 주장을 근거로 한다. 불성실한 응답이나 응답을 누락한 학생들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들은 전체 443명으로 그 중 여학생은 279명, 남학생은 164명이었으며 그들의 평균연령은 각각 18.71세(SD=0.90)와 18.91세(SD=1.23)였다. 검사는 심리학개론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당교수에 의해 실시되었고 3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다. 검사실시를 위해 약 40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 척도

1) 애착척도

① 4범주 애착척도

이성이나 친구 혹은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현재의 애착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 애착척도를 기초로 제작한 단일문항의 4범주 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장휘숙, 1999b 참조). 두 개의 자기모델(긍정적, 부정적)과 두 개의 타인모델(긍정적, 부정적)을 기초로 구성된 이 척도

는 안정형, 몰입형, 두려워하는/회피형 및 거부적/회피형의 4가지 애착양식을 산출한다. 여기서 안정형은 긍정적 자기모델과 긍정적 타인모델을 갖는 애착양식으로 타인을 수용적이고 반응적으로 지각하는 동시에 자신도 사랑스럽고 돌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몰입형 애착양식은 자기모델은 부정적이고 타인모델은 긍정적으로 타인과의 가까운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개인적 안녕감을 경험하기 위해 타인의 수용에 의존한다. 그리고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양식은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이 모두 부정적인 유형으로 거부적이고 무반응적인 타인과 무가치하고 사랑스럽지 못한 자기에 대한 내적 모델을 지니고 있다. 한편 거부적/회피형 애착양식은 자기모델은 긍정적 그리고 타인모델은 부정적으로 타인을 믿을 수 없고 접근불가능한 대상으로 지각한다.

이러한 네가지 유형의 애착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4범주 애착척도는 4가지 애착양식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을 주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상에 표시하게 한 다음,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양식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7점 척도상에 응답한 결과와 네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하나 이상의 애착양식에 대해 동일한 점수를 표시한 연구대상자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광범위한 연구들이 애착의 4범주 모델이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 모델보다 성인기 애착을 유의하게 더 잘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장휘숙, 1997b; Griffin & Bartholomew, 1994; Horowitz, Rosenberg & Bartholomew, 1993).

②부모 및 동년배 애착척도(IPPA)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가 사용되었다. 원래의 검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28개의 부모문항과 25개의 동년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및 동년배를 분리하여 각각 25문항씩 동일한 내용을 질문한 Paterson, Field 그리고

Pryor(1994)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의 질은 신뢰와 의사소통 점수의 합에서 소외점수를 뺀 점수로 계산하였다. Paterson등(1994)과 Paterson, Pryor & Field(1995)의 연구에 나타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 애착문항들의 내적 일관성계수(Cronbach alpha)는 각각 .94, .94, .48이었고 장휘숙(1997a) 연구에서는 각각 .91, .92 그리고 .90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계산된 내적 일관성계수는 각각 .89, .89 그리고 .90이었다.

2) 정체감 척도

①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Erikson Psychosocial Stage Inventory : EPSI)

Rosenthal, Gureney 및 Moore(1981)가 제작한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EPS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Rosenthal 등은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8개 단계 중 초기 여섯 단계(신뢰성, 자율성, 자주성, 근면성, 정체감, 친밀성)의 발달양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단계마다 위기의 성공적 해결문항 6개와 미해결 문항 6개씩을 배정하여 전체 72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정체감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상철(1986)이 이미 번안하여 사용한 바 있다.

② 자아정체감 척도

이 척도는 Dignan(1965)의 자아정체감 척도를 기초로 서봉연(1975)에 의해 제작되었다.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자기개념의 통합성, 안정성, 명확성 및 그와 관련된 감정으로 정의한 Dignan은 자기 의식, 독특성, 자기수용, 대인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및 대인관계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는 150문항의 자아정체감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서봉연(1975)은 Dignan 척도에서 62개의 문항을 선택하고 자기주장성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첨가하여 8개 영역(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

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성, 자기존재의식, 대인관계)의 4점 척도로 구성된 64개 문항 질문지 자아정체감 척도를 제작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장휘숙, 1995; 박준수, 1987; 조성덕, 1987)이 이 척도를 사용한 바 있다.

③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 (EOMEIS-2)

Marcia의 반구조화된 면접법을 질문지법으로 변형하여 자아정체감 척도로 구성한 Bennion과 Adams(1986)의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Extended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2)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Adams와 Shea(1979)가 제작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OMEIS)를 확장한 것으로 Bennion과 Adams는 기존의 직업, 종교, 정치영역에 생활철학, 교우관계, 이성관계, 성역할 및 여가활동을 첨가하여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를 제작하였다. 각 요인별로 8개 문항을 포함하며 전체 6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반구조화 면접법이 결여하는, 채점의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된 질문지로서 8개 요인에 대한 점수를 기초로 성취, 유예, 유실 그리고 혼란의 정체감 상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손해곤(1992)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국내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사용한 바 있다.

결과 및 해석

1. 4범주의 애착양식과 정체감의 관계

애착과 정체감의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4범주의 애착양식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였다. <표1>은 4개의 범주를 선택한 남녀 학생들의 빈도와 백분율을 보여준다. 애착범주에 따른 남녀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chi^2=5.122, p>.05$) 이후 분석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각 범주간

표 1 성별에 따른 4범주 애착의 빈도와 백분율

구분	제1범주 (안정형)	제2범주 (몰입형)	제3범주 (두려워하 는/회피형)	제4범주 (거부적/ 회피형)	전체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남	66(40.24)	66(40.24)	17(10.37)	15(9.15)	164(37.02)
여	117(41.94)	111(39.78)	39(13.98)	12(4.30)	279(62.98)
전체	183(41.31)	177(39.95)	56(12.64)	27(6.09)	443(100.00)

10.7%)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나 안정형 애착양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몰입형 애착양식,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양식 그리고 거부적/회피형 애착양식의 순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먼저 애착의 4범주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하위요인들과 전체점수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 2 애착의 4범주에 따른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하위요인들

분류	1범주 (안정형)	2범주 (몰입형)	3범주 (두려워하는/회 피형)	4범주 (거부적/ 회피형)	F값	사후검증 (Bonferroni)
	M(SD)	M(SD)	M(SD)	M(SD)		
신뢰성	3.47(0.51)	3.18(0.50)	3.12(0.46)	3.26(0.48)	12.83 ***	1-2, 1-3
자율성	3.50(0.49)	3.31(0.51)	3.19(0.39)	3.34(0.40)	7.68 ***	1-2, 1-3
자주성	3.39(0.47)	3.24(0.50)	3.25(0.48)	3.22(0.38)	3.23 *	1-2
근면성	3.28(0.39)	3.13(0.41)	3.07(0.36)	3.03(0.45)	7.79 ***	1-2, 1-3, 1-4
정체감	3.56(0.50)	3.39(0.52)	3.26(0.40)	3.26(0.41)	7.99 ***	1-2, 1-3, 1-4
친밀성	3.28(0.47)	3.01(0.42)	2.99(0.36)	3.13(0.39)	14.15 ***	1-2, 1-3
전체	3.41(0.40)	3.21(0.40)	3.14(0.32)	3.20(0.33)	11.37 ***	1-2, 1-3

* p<.05, ** p<.01, *** p<.001 이하 동일함.

사례수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으나 F_{max} 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분산성의 가정이 충족될 수 있어 후속 분석이 실시되었다.

<표 1>에 제시된 대로 각 범주에 응답한 대학생들의 비율은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이 모두 긍정적인 안정형 애착양식과 자기모델은 부정적이며 타인모델이 긍정적인 몰입형 애착양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이 모두 부정적인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양식이었으며 자기모델은 긍정적이나 타인모델은 부정적인 거부적/회피형 애착양식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구체적인 수치에서 장휘숙(1997b; 44.88%, 29.27%, 15.61%, 10.24%) 및 김동직과 한성열(1997; 40.1%, 34.1%, 15.0%,

<표 2>에 의하면,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하위요인들을 합산한 전체 점수에서 애착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형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전체 점수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애착과 정체감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안정형 애착양식을 제외한 2범주, 3범주 그리고 4범주의 애착양식 사이에서는 정체감 하위요인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3>은 서봉연의 자아정체감 척도의 하위요인들을 4개의 애착양식에 따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안정성과 목표지향성을 제외하고 나머

표 3 애착의 4범주에 따른 자아정체감 척도의 하위요인들

분 류	1범주 (안정형)	2범주 (몰입형)	3범주 두려워하 는/회피형	4범주 거부적/ 회피형	F값	사후검증 (Bonferroni)
	M(SD)	M(SD)	M(SD)	M(SD)		
안정성	2.51(0.35)	2.52(0.36)	2.51(0.32)	2.63(0.47)	0.83	
목표지향성	2.59(0.48)	2.49(0.51)	2.43(0.41)	2.47(0.47)	2.13	
독특성	2.50(0.31)	2.54(0.30)	2.65(0.36)	2.58(0.28)	3.48 **	1-3
대인역할기대	2.73(0.28)	2.65(0.30)	2.66(0.24)	2.53(0.29)	4.67 **	1-4
자기수용	2.50(0.35)	2.24(0.40)	2.25(0.34)	2.38(0.33)	15.69 ***	1-2, 1-3
자기주장성	2.39(0.36)	2.28(0.37)	2.39(0.34)	2.63(0.34)	8.04 ***	1-2, 1-4, 3-4, 2-4
자기존재의식	2.57(0.39)	2.46(0.40)	2.34(0.37)	2.54(0.37)	5.71 **	1-2, 1-3
대인관계	2.77(0.40)	2.57(0.38)	2.47(0.38)	2.44(0.37)	14.15 ***	1-2, 1-3, 1-4
전체	2.57(0.19)	2.46(0.20)	2.44(0.17)	2.52(0.33)	10.33 ***	1-2, 1-3

표 4 애착의 4범주에 따른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의 교우관계 영역에서 정체감 상태 하위요인들

분류	제1범주 (안정형)	제2범주 (몰입형)	제3범주 (두려워하는/회 피형)	제4범주 거부적/ 회피형)	F값	사후검증 (Bonferroni)
	M(SD)	M(SD)	M(SD)	M(SD)		
정체감 성취	8.19(1.85)	7.83(1.96)	7.76(1.67)	8.33(2.04)	1.67	
정체감 유예	7.08(1.49)	7.53(1.75)	7.59(1.59)	7.00(1.82)	3.12 *	1-3
정체감 유실	5.54(1.72)	5.38(1.51)	5.86(1.68)	5.70(1.23)	1.39	
정체감 혼란	3.65(1.80)	3.84(1.75)	4.52(2.11)	4.15(1.83)	3.45 *	1-3

지 6개 하위요인들과 그것을 합산한 전체 점수에서 애착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존재의식 및 대인관계에서는 안정형 애착양식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독특성 하위요인에서는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이 모두 부정적인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양식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자기주장성에서는 긍정적 자기모델과 부정적 타인모델을 갖는 거부적/회피형 애착양식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자기주장성 하위요인에서는 2범주와 4범주 및 3범주와 4범주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애착과 정

체감이 관련되어 있을 높은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의 하위요인들을 네 개의 애착범주에 따라 직업, 종교, 정치, 생활철학, 교우관계, 이성관계, 성역할 및 여가 활동영역에서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표4>에 제시한 교우관계를 제외하고, 전체 정체감 점수를 포함하여 어느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4>에서 정체감 유예와 혼란에서 긍정적인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을 지니고 있는 제1범주의 안정형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부정적인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을 지니고 있는 제3범주의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양식을

갖는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얻어 개인의 애착양식과 정체감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직업이나 종교, 정치, 생활철학, 이성관계, 성역할 및 여가활동영역과 같은 영역은 정체감 확립을 위해 더 오랜 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과 2학년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집단에서는 4범주의 애착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2.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정체감의 관계

IPPA로 측정된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t=0.04, p>.05$), 아버지($t=1.88, p>.05$) 및 동년배($t=0.168, p>.05$)에 대한 애착점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후속분석에서는 남녀점수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세 개의 정체감 척도 즉, 에릭슨 심리사회적 단계검사, 자아정체감 척도 및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의 하위요인들 사이의 상관관을 제시하면 <표5>와 같다.

<표5>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모든 하위요인들 및 전체 점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있음을 제시해준다. 자아정체감 척도에서는 안정성요인과 자기주장성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인들에서 유의한 상관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의 유예상태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3인에 대한 애착과 정체감 상태요인간에 유의한 상관관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아정체감 척도의 독특성 요인은 어머니, 아버지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유의한 부

표 5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와 각 정체감하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표

분 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동년배에 대한 애착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 검사	신뢰성	0.356 ***	0.187 ***	0.338 ***
	자율성	0.267 ***	0.159 ***	0.315 ***
	자주성	0.339 ***	0.195 ***	0.335 ***
	근면성	0.296 ***	0.213 ***	0.309 ***
	정체감	0.315 ***	0.212 ***	0.405 ***
	친밀성	0.297 ***	0.152 **	0.313 ***
전체		0.368 ***	0.219 ***	0.397 ***
자아 정체감 척도	안정성	0.077	0.068	-0.011
	목표지향성	0.277 ***	0.131 **	0.149 ***
	독특성	-0.298 ***	-0.302 ***	-0.248 ***
	대인역할기대	0.390 ***	0.273 ***	0.291 ***
	자기수용	0.249 ***	0.185 ***	0.252 ***
	자기주장성	0.145 **	0.059	0.075
자기존재의식	0.200 ***	0.119 *	0.206 ***	
대인관계	0.309 ***	0.170 ***	0.440 ***	
전체		0.365 ***	0.190 ***	0.295 ***
확장된 객관적 자아 정체감 상태 척도	정체감 성취	0.166 ***	0.143 **	0.204 ***
	정체감 유예	0.036	0.139 ***	0.100 *
	정체감 유실	0.127 **	0.211 ***	-0.101 *
	정체감 혼란	-0.237 ***	-0.117 *	-0.277 ***

적 상관관을 그리고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의 정체감 혼란 역시 3인에 대한 애착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독특성 하위요인의 점수는 더 낮아지고 정체감 혼란에 이를 가능성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애착과 정체감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변인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 중 누가 정체감 척도의 각 하위요인에 더 큰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5>의 결과로써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6개 하위요인들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6>과 같다.

<표6>에 제시된 것처럼, 어머니와 동년배는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신뢰성요인에서 17.8%, 자율성 12.6%, 자주성 16.6%, 근면성

표 6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6개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변인	β	ΔR^2	R^2	F 값
신뢰성	어머니	0.26	0.127	0.127	62.84 ***
	동년배	0.24	0.051	0.178	27.05 ***
자율성	동년배	0.16	0.091	0.091	47.53 ***
	어머니	0.25	0.027	0.126	13.31 ***
자주성	어머니	0.24	0.11	0.113	55.27 ***
	동년배	0.23	0.05	0.166	27.17 ***
근면성	동년배	0.22	0.095	0.095	45.64 ***
	어머니	0.17	0.039	0.135	19.73 ***
정체감	동년배	0.32	0.161	0.161	83.25 ***
	어머니	0.17	0.033	0.195	17.99 ***
친밀성	동년배	0.23	0.095	0.095	45.72 ***
	어머니	0.21	0.039	0.135	19.83 ***
전체	어머니	0.27	0.154	0.154	71.77 ***
	동년배	0.26	0.063	0.217	31.58 ***

13.5%, 정체감 19.5%, 친밀성 13.5% 그리고 전체 점수에서 21.7%의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내었다. 특히 동년배는 자율성, 근면성, 정체감, 친밀성에서 어머니보다 더 큰 설명량을 나타내어 동년배가 어머니보다 대학생들의 정체감 확립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는 6개 요인 어느 하나에서도 유의한 설명량을 갖지 못하여 대학생들의 정체감 확립에 가장 영향력이 적은 인물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들이 자아정체감 척도의 8개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7>과 같다.

<표7>에 제시된 대로, 어머니는 안정성, 목표 지향성 그리고 자기주장성 요인에서 각각 1.6%, 8.9%, 3.3%의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어머니는 동년배와 함께 자기수용, 자기존재의식, 대인관계 요인과 전체점수에서 8.7%, 4.9%, 21.3% 그리고 16.2%의 설명량을 나타내었고 독특성과 대인역할기대에서는 어머니를 포함하여 아버지와 동년배가 함께 영향을 미쳐 각각 14.4%와 20.7%의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는 8개 변인 모두와 전체 점수에서 유의한 설명량을 갖는 인물이었다고, 그 다

표 7 자아정체감 척도의 8개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변인	β	ΔR^2	R^2	F 값
안정성	어머니	0.06	0.016	0.016	6.364 *
목표 지향성	어머니	0.26	0.089	0.089	38.67 ***
독특성	아버지	-0.21	0.097	0.097	21.67 ***
	동년배	-0.14	0.031	0.128	13.74 ***
	어머니	-0.13	0.016	0.144	7.32 *
대인역할 기대	어머니	0.29	0.168	0.168	79.16 ***
	동년배	0.17	0.029	0.197	14.30 ***
	아버지	0.11	0.010	0.207	4.85 *
자기수용	어머니	0.16	0.062	0.062	26.01 ***
	동년배	0.15	0.024	0.087	10.65 **
자기주장성	어머니	0.17	0.033	0.033	13.44 ***
자기존재 의식	어머니	0.14	0.036	0.036	14.89 ***
	동년배	0.11	0.012	0.049	5.20 *
대인관계	동년배	0.36	0.185	0.185	88.99 ***
	어머니	0.18	0.028	0.213	14.30 ***
전체	어머니	0.29	0.132	0.132	60.01 ***
	동년배	0.18	0.029	0.162	13.78 ***

음이 동년배로서 5개 변인과 전체 점수에서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독특성과 대인역할기대에서만 유의한 설명량을 보여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에서와 동일하게 가장 영향력이 적은 인물이었다. 특히 독특성 요인은 3인의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그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하위요인이었으며 또한 3인의 애착인물들은 대인역할기대나 대인관계와 같은 타인관련적 요인에서 높은 설명량을 갖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표 8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인	β	ΔR^2	R^2	F 값
정체감 성취	동년배	0.16	0.042	0.042	18.74 ***
	어머니	0.07	0.010	0.052	4.57 *
정체감 유예	아버지	0.14	0.018	0.018	8.00 **
정체감 유실	아버지	0.21	0.047	0.047	20.93 ***
	동년배	-0.17	0.021	0.068	9.82 **
	어머니	0.09	0.010	0.078	2.96 *
정체감 혼란	동년배	-0.15	0.077	0.077	35.59 ***
	어머니	-0.22	0.021	0.097	9.49 **

<표8>은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의 전체 점수에서 4가지 하위요인들에 대해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4개의 자아정체감 상태에 대해, 3인의 애착인물이 갖는 설명량이 크지는 않았지만, 정체감 성취와 혼란에서는 동년배와 어머니가 각각 5.2%와 9.7%의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내었고 유예에서는 아버지만이 1.8%의 유의한 설명량을 그리고 유실에서는 아버지, 동년배 그리고 어머니의 3인이 7.8%의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내었다. 자기정의와 자기탐색을 통하여 통합적인 자기상을 확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이에 해당하는 정체감 유예와 부모나 의미있는 다른 사람의 가치와 기대를 무조건 수용하고 채택하는 정체감 유실 학생들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체감 유실과 혼란에서 나타난 기울기의 방향을 고려할 때,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낮을 때 정체감 유실이 나타나고 동년배와 어머니 양자에 대한 애착이 낮을 때 정체감 혼란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논 의

이 연구는 2000학번과 1999학번의 1, 2학년 남녀 대학생, 443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현재의 애착양식(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정체감 및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정체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애착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일문항의 4범주 애착양식척도가 사용되었고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IPPA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정체감 척도로서는 Erikson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된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와 8개 요인으로 구성된 자아정체감 척도 및 정체감 상태를 분류하기 위하여 Marcia의 반구조화된 면접법을 질문지법으로 변형한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

체감 상태척도 등 3개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정체감은 중다의 차원을 포함하는 복잡한 구성개념이기 때문에 상이한 가정을 바탕으로 제작된 척도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애착과 정체감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규명하려고 하였다.

4범주의 애착척도는 물론 어머니, 아버지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후속 분석에서는 남녀 학생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4범주의 애착양식에 할당된 사례수에서 남녀 학생 모두 큰 차이를 나타내어 F_{max}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동분산성의 가정이 충족될 수 있어 후속분석이 수행되었다. 애착양식과 정체감 수준에서 성차가 없다는 사실은 Lapsley 등(199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남녀 대학생들은 비슷한 수준의 애착과 정체감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었다.

분석결과, 4범주의 애착양식에 따라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6개 하위요인 모두와 자아정체감 척도의 8개 하위요인 중 6개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자아정체감 척도의 자기주장성 요인에서는 1범주(안정형)와 2범주(몰입형), 3범주(두려워하는/회피형)와 4범주(거부적/회피형) 그리고 2범주(몰입형)와 4범주(거부적/회피형)의 애착양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나머지 11개 요인들에서는 1범주인 안정형 애착양식과 나머지 세가지 애착범주 중의 일부만이 구분됨으로써 개인의 애착양식이 안정형이나 아니냐에 따라서만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들에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주장성 요인에서 나타난 애착범주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때, 네 개의 애착양식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의 하위요인들을 네 개의 애착범주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직업, 종교, 정치, 생활철학, 교우관계, 이성관

계, 성역할 및 여가활동의 8개 영역 중 교우관계 영역에서만 정체감 유예와 정체감 혼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부정적 자기모델과 부정적 타인모델을 갖는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양식을 갖는 개인들이 긍정적 자기모델과 긍정적 타인모델의 안정형 애착양식을 갖는 개인들보다 유예와 혼란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정체감 이론과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물론 애착양식에 따라 정체감 상태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비록 애착양식과 정체감 상태를 측정하는 방식이 서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가 Kroger(1985) 연구의 일부 및 Kroger와 Haslett(1988)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도 애착양식과 정체감이 관련되어 있을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다.

대조적으로 정체감 상태 중 정체감 성취나 유실에서 애착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 자체가 갖는 문제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연구가 2000년 3월 하순경에 이루어졌으므로 대학 신입생들과 대학 2학년에 막 진입한 연구대상자들이 정체감 확립에 이르기에는 아직 미성숙하여 정체감 성취나 유실에 이르지 못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만약 대학 상급학년 학생들이 포함된다면 애착양식에 따라 정체감 상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Lapsley 등(1990)도 대학 저학년 학생들보다 고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애착과 적응간에 더 강한 연합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IPPA를 사용하여 애착과 정체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Erikson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된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하위요인과 전체 점수 모두는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유의한 상관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자아정체감 척도의 독특성 요인은 3인의 인물에 대한 애착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나타내었고 자기주장성 요인은 아버지 및 친구에 대한 애착과 유의한 상관관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독특성 하위요인은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이 모두 부정적인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양식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요인이기 때문에 3인의 애착인물과의 부적 상관관은 일관성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자기주장성 요인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아버지나 친구는 대학생들의 자기주장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안정성 요인이 3인의 애착인물, 어느 누구에 대한 애착과도 유의한 상관관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정성은 자아정체감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개인적 정체성의 시간에 따른 계속성을 나타내는 정체감의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애착과 유의한 상관관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본 연구의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에서 나타난 결과나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의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을 뿐아니라 Lapsley 등의 연구와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서봉연 척도에 포함된 안정성 문항들이 자아정체감의 안정성 측면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가정해볼 수 있다.

IPPA를 사용하여 애착을 측정된 Quintana와 Lapsley(1987) 그리고 Lapsley 등(1990)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부모문항으로 애착정도를 측정하였으므로 대학생들의 정체감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구분할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학생의 정체감 형성에 차이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분리하여 연구한 결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어떤 요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자아정체감 척도에서는 대인역할기대와 독특성 하위요인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한 정체감 상태에서는 정체감 유예와 정체감 유실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어 아버지는 개인적 신념이나 자기정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유예청년들이나 성인의 가치나 기대를 무조건 수

용하는 유실청년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는 대조적으로 어머니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에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었다. 정체감 유예를 제외하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17개 정체감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점사의 자율성, 근면성, 정체감, 친밀성에서, 자아정체감 척도의 대인관계에서 그리고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의 성취, 유실 및 혼란에서 어머니보다 더 큰 설명력을 갖는 변인이었다. 특히 정체감 유실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낮을 때 나타나고 정체감 혼란은 동년배와 어머니 양자에 대한 애착이 모두 낮을 때 나타나기 쉬운 정체감 상태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친구는 청년후기 동안 대학생들의 통합적인 자기상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대학 저학년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정체감 형성에서 대학 신입생들과 고학년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Lapsley 등, 1990),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모두 포함하여 애착과 정체감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3개의 정체감 척도 즉, Erikson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된 정체감 척도,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자기개념의 통합성, 안정성, 명확성 및 그와 관련된 감정으로 정의한 Dignan의 척도를 확장한 서봉연의 자아정체감 척도, 그리고 Marcia의 이론을 따라 정체감 상태를 구분한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들은 각기 상이한 가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사실은 애착이 개인의 정체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러나 정체감 하위영역들에서 나타난 애착의 낮은 설명력은 애착과 정체감 사이를 매개하

는 변인들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예를들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애착이 대처방식과 관련되어 있고 대처방식 또한 정체감과 관련된 변인이라면, 대처방식은 애착과 정체감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유사하게 애착은 물론 정체감과도 높은 상관이 있는 개인의 자기존중감은 대처방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변인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애착과 정체감 사이를 매개하는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미래연구에서는 자기보고 방식의 질문지 척도만을 사용할 때 누락될 수 있는 잔여효과들을 평정하기 위하여, 애착면접이나 정체감 상태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질적연구방법의 활용은 질문지척도만이 사용될 때 초래되는 공유된 방법변량(method variance)의 잠재적인 편향된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직과 한성열(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 11, No. 2, 91-109.
- 박준수(1987). 자아정체감과 적응력 및 자아실현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해곤(199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 및 정체감 위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5). 세가지의 자아정체감 척도에 관한 비교연구. 황용연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 장휘숙(1997a).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인

- 간발달연구, 제4권 1호, 88-106.
- 장휘숙(1997b).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 10, No. 2, 123-138.
- 장휘숙(1999a).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장휘숙(1999b). 성인기의 애착측정: 면접과 자기 보고형 척도들에 관한 개관.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제6권 2호*, 147-168.
- 조성덕(1987). 자아정체감 성장프로그램의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1986). 청년기에 있어서 자아 아이덴티티의 발달과정 -EPSI를 통한 발달과정의 형성기간에 대한 규명-.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dams, G. R., & Shea, J. A. (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status, locus of control and ego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 81-89.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No. 2, 226-244.
- Bennion, L. D., & Adams, G. R. (1986). A revision of the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identity Status: An identity instrument for use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183-198.
- Berman, W. H. (1988). The relationship of ex-spouse attachment and adjustment following divor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 312-328.
- Berman, W. H., & Sperling, M. (1991). Attachment and distress in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427-440.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III: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5, 476-483.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Fitch, S. A., & Adams, G. R. (1983). Ego-identity and intimacy status: Replication and exten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39-845.
- Greenberger, E., & McLaughlin, C. S. (1998). Attachment, coping and explanatory style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7, No. 2, 121-139.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3, 430-445.
- Hazan, C., & Shaver, P. (1987). Conceptualizing romantic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olahan, C. J., Valentiner, D P., & Moos, R. H. (1995). Parental support, coping

-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n integrative model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4, No. 6, 633-648.
- Horowitz, L. M., Rosenberg, S. E., & Bartholomew, K. (1993). Interpersonal problems, attachment styles and outcome in brie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1, No. 4, 349-560.
- Kacerguis, M. A., & Adams, G. R. (1980). Erikson stage resolu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and intima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117-126.
- Kenny, M. E. (1990). College seniors' perceptions of parental attachments: The value and stability of family ti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1, 39-46.
- Kenny, M. E., & Rice, K. G.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23, No. 3, 433-456.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roger, J. (1985).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go identity status in New Zealan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133-147.
- Kroger, J., & Haslett, S. J. (1988).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go identity status in late adolescence: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59-79.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 68, 561-565.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Y: Wiley.
- Marcia, J. E. (1976). *Studies in ego identity*. Unpublished monograph, Simon Fraser University, Burnaby, British Columbia.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4, No. 5, 817-826.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579-600.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365-376.
- Quintana, S. M., & Lapsley, D. K. (1987). Adolescent autonomy and ego identity: A structural equations approach to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 393-410.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1, No. 4, 471-485.
- Rice, K. G. (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9, No. 5, 511-538.
- Rice, K. G., Cunningham, T. J., & Young, M. B. (1997).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well-being: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4, No. 1, 89-101.
- Rice, K. G.,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bs, C. L.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463-474.
- Rosenthal, D. A., Gurney, R. M., & Moore, S. M., (1981). From trust to intimacy: A new inventory for examining Erikson's state of psych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6, 525-537.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ego identity in College Students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nt attachment style and ego identity and between attachment to mother, father, peer and ego identity. 443 College students were tested by 4-category attachment style measure, IPPA and three ego identity tests based on different assumption. The results offered similar partial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ego identity in three identity measures. Also attachment to three persons was correlated to the subfactors of three identity measures. Among three persons, mother has the most effects and father the least effects in identity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